

## 국내 소식

### 통상부, 전력 등 안전관리 강화위해 중앙안전 점검대책반 상설유지

통상산업부는 전력을 비롯한 가스, 석유, 석유화학 등의 사고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적 효율적인 사고수습지원을 위해 중앙안전점검대책반을 설치, 24시간 상설 유지키로 했다.

통상산업부 박재운장관은 전력, 가스, 석유 등 소관 주요시설 및 업체 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17일 중앙안전점검대책회의를 갖고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기관별 정밀한 안전점검계획을 세워 이에 따른 철저한 점검·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2기관이 참여하는 전력분야를 포함한 각 분야의 안전점검 대책반을 상설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가스, 전력, 석유 등 에너지 및 제조업분야 주요시설에 대한 재해 또는 사고발생 우려사태가 발생할 경우 기업 또는 일반 시민으로부터 보고 또는 신고를 접수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한편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여부 확인·점검과 각종 재해의 상황 파악,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을 비롯 재해 예방에 관한 대국민홍보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유사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진단·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점검체계의 개편을 검토 추진하고 안전점검종사자의 전문적 자질 제고 및 대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밝혔다.

한편 사고 신고 접수는 전화 503-9600, FAX 504-0174이며, 야간의 경우는 당직실 503-9500이다.

### 에너지경제신문, 산업안전 규제완화 대책 대담회 개최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규제완화반이 추진중인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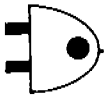
업안전 규제완화 방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4년제 대학교와 2년제 전문대학 전기과 정원에 해당하는 3만3천여명의 진로가 막히고 전기공학과 자체의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기분야 국가전문인력 양성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기학회 박상희부회장(연세대 전기과교수)과 대림전문대학 송언빈교수 등은 지난 1월 18일 무역센터 51층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산업안전 규제완화 대책 좌담회」(사진)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기공학과에서도 상위권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만 기사시험에 합격하는 현실여건상 전기기사들의 터전인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제도의 폐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박부회장은 전기안전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전기수용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근 전기수용가 및 전력 공급계통에 정전 등의 사고가 파급되기 때문에 우수한 전문가에 의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무고용제 폐지 발상자체가 국가경쟁력강화는 물론 세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국에는 서울대 등 국·공립 4년제대학 55개교, 전문대 22개교, 19개 병설전문대학을 포함 총 96개 대학에서 1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의무고용제가 폐지될 경우 기술숙련도가 낮은 기능사나 일반산업 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관리를 맡게돼 불시의 대형사고 발생은 물론이고 전기화재의 급증과 함께 96개 대학의 관련학과 폐지로까지 이어져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물의를 초래시켜 산업안전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본문



특집 참조).

### 전기설비 표준시방서 대폭 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가 대폭 개정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는 공동으로 1년여의 개정작업을 거쳐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이 전기공사 시방서개정안을 확정했다.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전기부문은 '76년 제정된 이후로 개정, 보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텔리전트형 빌딩의 출현, 전기설비의 첨단화 추세 등에 부응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전기공사 표준시방서가 일반공통사항, 옥내배선공사, 구내전선로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방재전기설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 등 10개분야에 걸쳐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전기설비공사의 적정시공과 공사기술의 선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작업을 주도한 건설기술연구원은 앞으로 3~4년 1회씩 전기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전기공사협회는 금명간 개정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책자로 편집, 회원사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 전력용 몰드변압기 등 단체표준품질인증 추가 지정

전력용 몰드변압기(단상, 3상), 특고압 컷아웃스위치, 전력용 피뢰기,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등 4개 품목이 지난해 12월 27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전기 기자재 부문 「단체표준품질인증」 품목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전기 기자재 부문 심사 지정기관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품질인증」 품목은 기존의 폐쇄배전반(고압, 특고압), 디젤엔진 구동육상용

기동발전기, 무정전 전원시스템(단상, 3상), 자동전압조정기(단상, 3상) 등 4개 품목에서 8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금번 추가 지정된 4개 품목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표준(KS)이 없거나 국가표준 이상의 품질수준을 요구하는 제품으로서 전기 기자재 및 동부품의 품질고도화와 생산효율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95년 1월)까지 조합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회원사(전기기자재 제작사)는 2개사이고 심사중에 있는 회원사는 3개사이나 금년말까지는 20여개 회원사가 품질인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전기공업협동조합은 현재 8개 품목인 「단체표준품질인증」 품목을 26개 품목으로 확대·지정받아 개방과 경쟁에 대비한 국내 전기기자재의 품질 및 기술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해 나갈 예정이다.

## 해 외 소 식

### 고기능·소형화 차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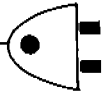
일본 미쯔비시전기는 노퓨즈차단기·누전차단기 모델변형·신형 노퓨즈차단기·누전차단기 PSS시리즈로 제품화해 작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

동사의 노퓨즈차단기·누전차단기는 「Wide Selection & Better Performance」를 테마로 종래에 개발한 「Super Scrum & NV」 시리즈를 기본으로 차세대의 요구에 대응한 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고기능화·소형화, 표준화, 사용상 편리를 중시하는 시장 요구의 변화에 입각해 신차단기술 ISTAC를 채용 한류성능향상과 차단간격의 축소를 동시에 실현했다.

또한 62기종의 제품을 3종류의 외형치수에 모듈화하고 동일 암페어후렘, 동일 외형을 실현했다.

한편 이 회사는 8천4백80엔부터 18만9천엔까지 함께 69기종을 라인업해서 올해 2백50만대의 생산



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공급전압 차별화 전원스위치 소자 개발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사는 최근 파워트랜지스터와 회로보호장치를 통합한 전원스위치소자 「TPS-2201」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노트북 컴퓨터 및 휴대용 통신단말기(PDA), 디지털 카메라 등의 전원을 조절해 각각의 반도체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반도체는 제품에 따라 3V, 5V 및 12V 등으로 전압이 다른데 T1가 개발한 스위치 소자는 이들 반도체에 공급되는 전압을 차별화시켜 준다.

### 전류방전 결함 제거 메모리 기관

일본 NEC는 최근 최첨단 2백56메가 D램에 필요한 새로운 메모리셀 기관을 개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기관을 실리콘 질화막으로 셀의 표면전체를 덮은 것으로 「COB」라 불리우기도 한다.

COB은 셀을 최소화시켜 탄소의 영향으로 인접한 셀끼리 상호 전류를 방전시키는 결함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특히 COB형의 셀의 전면을 덮은 실리콘 질화막은 콘텐서의 전극으로 작동하는 정보류 전하의 형태로 축적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셀 표면을 덮어 표면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셀이 작아도 용량은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COB형 셀은 초정밀 가공에 필수적인 최첨단 D램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고(高)천장용 조명기구 선보

일본 마쓰시다전기는 최근 실내 체육관 등에 사용되는 고천장용 조명기구를 개발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계된 이 제품은 기존의 250~400W용 보다 훨씬 광범위한 공간을 비출 수 있는 700·1000W용이다.

또한 이 상품은 안정기와 홀더를 일체화하여 안정기의 설치나 결선작업이 필요없어 시공시간을 약 2분의 1 정도 단축시켰다.

내장안정기에는 이상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온도퓨즈와 전류퓨즈가 있어 안정성에 중점을 둔 제품이다.

## 회원(사)소식

### 축하드립니다

- 경기북지부 김지경지부장:라전모방 이사승진(1.1)
- 강태근회원(No 3536):제42회 전기안전기술사 최종합격

### 대전지역 전기인 조찬회

- 일 자 : 1995년 1월 18일(수)
- 장 소 : 대전 샤평호텔
- 주 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지사
- 참 석 자 : 20명
- 토의내용 : 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 현황 설명

### 대전전기기술자협의회 개최

- 일 자 : 1995년 1월 25일(수)
- 장 소 : 두리 FA 엔지니어링
- 임원선출 : 회장 서권한(충청은행) : 유임  
총무 박경식(대덕크리스탈) : 유임  
감사 전재동(충남도시가스) : 유임

